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케냐

Republic of Kenya

2019년8월7일 | 조사역(G3) 안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580천 km ² 	인구 4,803만 명 (2018)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892.05억 달러 (2018) 	1인당GDP 1,857.16 달러 (2018) 	통화단위 Kenya Shilling (Ksh) 	환율(U\$기준) 101.30 (2018 평균)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4,803만 명 (2018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개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강우량의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동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원유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독립 이래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최대 부족인 Kikuyu족을 위시한 40개 이상의 부족들 간에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정치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1975. 5. 12)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4),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투자보호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162,322	204,940	239,591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입	104,477	40,192	50,453	동, 알루미늄, 방직용섬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30건, 10,399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e	2019 ^f
경제성장률	5.7	5.9	4.9	6.0	5.8
소비자물가상승률	6.6	6.3	8.0	4.7	4.4
재정수지/GDP	-8.1	-8.3	-7.8	-7.3	-5.2

자료: IMF, EIU

인프라 부문 투자 등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 케냐는 농업(임·수산업 포함) 부문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농업 의존적 구조로, 강우량 등 기후 조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큼. 2017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업 부문 침체와 대선 무효 판결 및 재선거 실시, 야당의 불복에 따른 정치적 갈등 심화 등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4.9%로 다소 둔화되었음.
- 2018년에는 풍부한 강우량에 따른 농업 부문 회복,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안정성 개선,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건설 등 인프라 부문 투자에 힘입어 6.0%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에는 예년보다 늦어진 우기로 농업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케냐 통계청에 따르면 2019. 1분기 기준 농업 부문(임·수산업 포함)의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2%p 하락한 5.3%를 기록하였음. 다만, Vision 2030 중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 부문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2019년 경제성장률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 유지 전망

- 케냐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중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0%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큼. 2017년 케냐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여 8.0%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강우량으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안정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4.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비중은 식료품 36%, 주거비 및 수도·전기·가스요금 18.3%, 교통비 8.7%임.

- 2019년에는 강우량 감소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년에 이어 4% 중반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케냐 통계청에 따르면 2019. 6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5.7%임.
- 한편, 케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관리목표 물가수준 5±2.5%)를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금리를 9.5%에서 9.0%로 하향 조정 후 현재까지 9.0%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케냐는 2016년부터 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은행 예금·대출금리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로부터 일정 구간을 넘을 수 없음에 따라 기준금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임.

국내경제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속 예정

- Uhuru Kenyatta 행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경기부양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3년 -5.7%에서 2016년 -8.3%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2017년부터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가뭄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증가, 세수 부족 등으로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7.8%를 기록하였음.
- 2018년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으로 조세수입이 10년 내 최저치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 정부의 공공투자 삭감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대비 0.5%p 하락한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당초 케냐 정부는 세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 연료에 대해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 16%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2018년 9월 부가가치세율을 8%로 낮춘 바 있음.
- 한편, 케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로 줄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면세구간 축소, 사행성 사업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e	2019 ^f
경상수지	-4,289	-3,697	-5,018	-4,322	-4,686
경상수지/GDP	-6.7	-4.8	-6.2	-4.9	-4.8
상품수지	-8,375	-7,666	-10,202	-10,237	-10,750
상품수출	5,982	5,747	5,792	6,105	6,409
상품수입	14,358	13,413	15,994	16,342	17,159
외환보유액	7,515	7,554	7,319	8,152	9,233
총외채	25,961	30,842	36,662	42,549	48,121
총외채잔액/GDP	40.4	43.5	46.3	47.7	48.5
D.S.R.	26.9	25.9	35.7	38.0	50.1

자료: IMF, EIU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케냐의 상품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원유 등 수입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다만,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등으로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기록 중이며,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수지도 흑자를 기록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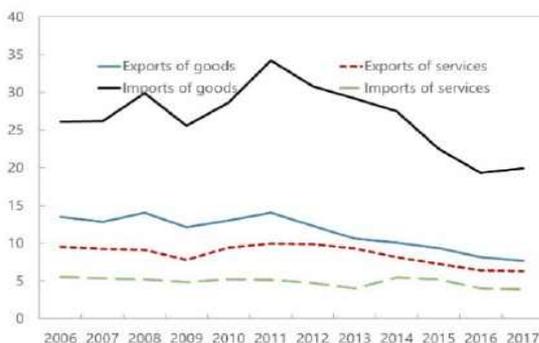
* 상품수입/GDP(%) : 33.8('11) → 30.8('12) → 29.2('13) → 27.6('14) → 22.4('15) → 19.4('16) → 20.3('17) → 18.6('18)

- 2017년에는 가뭄에 따른 식료품 수입 증가, 국제유가 상승, 표준궤 철도 1구간 완공 및 2구간 착공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6.2%를 기록하였음. 한편, 2018년에는 기후조건 개선에 따른 농산물 수출 증가, 정치 안정화에 따른 관광업 성장으로 서비스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4.9%로 축소됨.

- 한편, 케냐의 경상수지 적자는 케냐가 원유 순수출국이 되는 2022년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도 주요 수출품인 커피, 차의 낮은 가격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케냐 GDP 대비 상품·서비스 수출입 비중

(단위: %)



자료: IMF

케냐 경상수지 구성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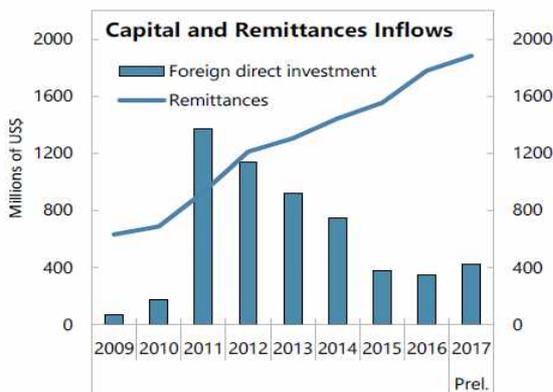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해외거주자 송금으로 양호한 외환보유액 유지 중

- 케냐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송금, 대외 차입 등으로 인해 양호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케냐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41.2억 달러에서 2018년 81.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월평균 수입액의 4.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 (해외거주자 송금) 케냐 외환보유고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해외 거주 케냐인의 송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해외거주자 송금액은 27억 달러임.
- (외국인직접투자) 케냐는 2011년 FDI 유입액이 14.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부정부패 만연, 범죄, 테러 지속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 정치 안정성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여 2017년 기준 FDI 유입액은 6.7억 달러임.

케냐 FDI 및 해외거주자 송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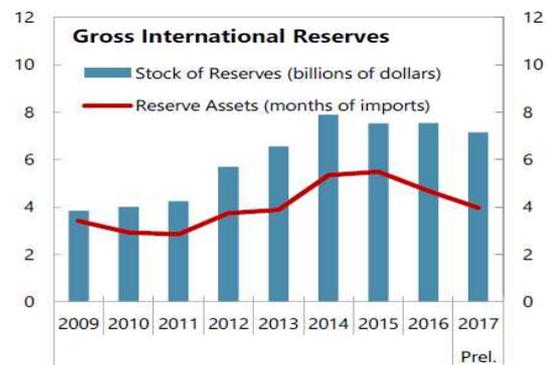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케냐 외환보유고 및 외환보유고/월평균수입액

(단위: 십억 달러 및 개월)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외차입으로 외채규모 지속적 증가

- 케냐 정부의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 쌍둥이 적자 보전 등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케냐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는 각각 47.7%, 38.0%로 외채부담이 큰 편임.
- 정부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조세 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대외차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케냐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18년 기준 57.2%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6월 기준 케냐의 공공외채 구성을 보면 다자기구 채무의 비중이 약 40%로 여전히 큰 편이나, 최근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중국으로부터의 차입 증가 등 양자·상업 채무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기구 채무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

* 케냐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51.6('15) → 53.2('16) → 54.8('17) → 57.2('18)

** 케냐의 공공외채(보증 제외) 대비 다자기구 채무의 비중(%): 49.3('15.6) → 45.8('16.6) → 38.9('17.6) → 33.9('18.6)

- 케냐 정부는 2014년 28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2018년 2월에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및 채무상환 여력 확보 등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2019년 5월에도 재정지출 자원 확보 및 만기 도래 유로본드 상환을 위해 21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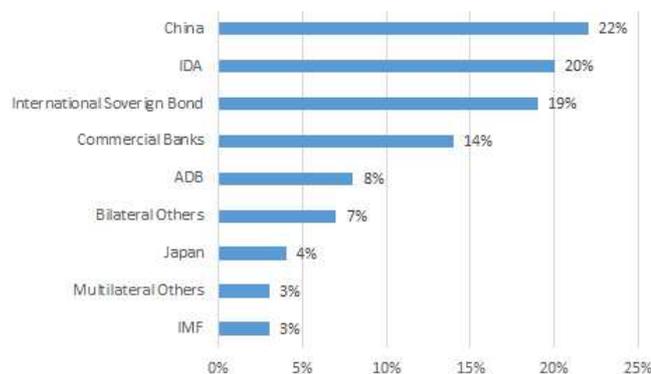
* 이자율 7.25%, 만기 10년물 및 이자율 8.25%, 만기 30년물

** 이자율 7.0%, 만기 7년물 및 이자율 8.0%, 만기 12년물

- 한편, 케냐는 중국의 아프리카 주요 전략국 중 하나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케냐의 대 중국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몸바사항에서 우간다 접경 지역인 말라바를 연결하는 표준궤 철도 (Standard Gauge Railway)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부두, 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케냐 당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대 중국 외채는 케냐 공공외채의 약 22%를 차지하여 채권자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케냐 공공외채의 2018. 6월 기준 채권자 분류 현황

(단위: %)



자료: 케냐 재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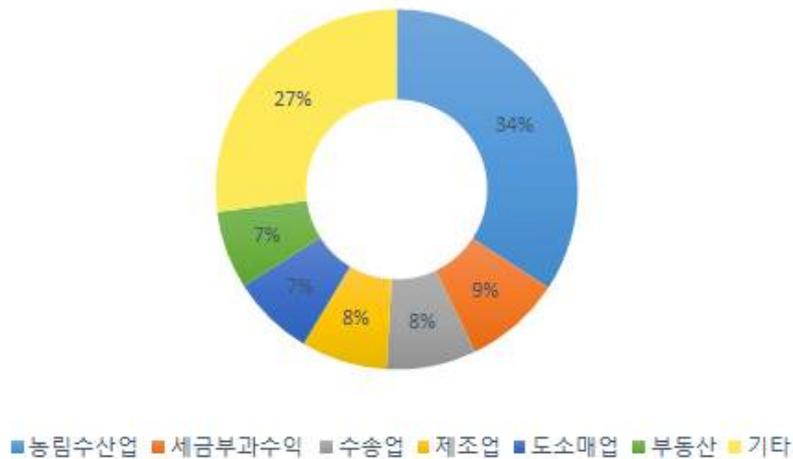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임에도 농업 전반의 생산성은 낮은 상황

- 케냐 경제는 비도시 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임수산업 포함) 부문이 2018년 기준 GDP의 34.2%를 차지하는 농업 의존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관개시설, 낙후된 영농법 등으로 농업 전반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
- 최근 토지 임대료 상승, 전기세 및 부가세 상승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또한 약화되었으며, 전체 금융권 대출 비중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수출품목인 차(tea)와 원예작물(화훼, 과일 등)이 2018년 상품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5.6%, 22.9%로 강우량 등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국제시세 등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한편, 케냐 통계청에 따르면 케냐 농산물의 동아프리카 시장 수출은 점차 감소 추세*이며, 농산물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케냐 동아프리카 시장 농업부문 수출액 : 12.6억 달러('15) → 11.4억 달러('17)

케냐 산업별 GDP 구성(2018)



자료: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19

케냐 주요 농산물 수요 및 공급 현황(2018)

(단위 : 천 톤)

품목	수요량	생산량	공급 부족량
옥수수	4,514	3,186	1,328
설탕	1,365.1	376.1	989
밀	2,020	165	1,855
쌀	706.343	81.2	625.143

출처 : Kenya Business daily

구조적취약성

인프라 취약으로 제조업 발달은 미미한 수준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임에도 2018년 기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하며,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미비, 숙련 노동력의 부족, 관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 등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에 따르면 케냐의 인프라 수준은 140개국 중 105위 수준이며, 도로연결율은 140개국 중 80위, 상하수도 시설 미흡으로 안전한 식수 보급률은 140개국 중 115위 수준에 불과한 등 열악한 인프라가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케냐의 2010년 기준 전력 보급률이 20% 내외였으나, 케냐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열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도입을 통해 케냐 정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력 보급률이 73%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에 따르면 전력보급률은 140개국 중 110위 수준으로 여전히 열위한 편임.
- 인구의 약 30% 정도가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케냐 정부는 지열발전 생산용량 증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체 인구에 대해 전력을 보급할 예정임.

성장잠재력

해변, 사파리 등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 케냐는 인도양 연안의 해변과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비롯한 사파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획득원*임.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의 'Economic Impact 2018 Kenya'에 따르면, 케냐의 관광 부문은 2017년 케냐 GDP의 9.7%에 달함.

- 2013년 이후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Shabaab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에볼라 발생 위험국으로 지정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었으나, 2016년부터 치안상황 개선과 국제회의·관광 증가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회복 추세에 있음. 케냐 정부도 마케팅 프로그램,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관광지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케냐 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관광산업 수입은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0%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대비 9.7% 증가한 147만 명을 기록하였음.

동아프리카의 ICT 거점국가를 목표로 투자 지속

- 케냐는 2017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00명당 86.1명에 이르는 등 동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케냐 정부는 ICT 산업을 주요 경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동아프리카의 ICT 거점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4년에 발표된 국가 정보통신 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ICT Masterplan)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 방식의 공공 서비스 확대, ICT 산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 제 2차 중기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기관의 광케이블 구축, 국가 ICT 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국가 ICT 인프라 사업 개선, 지방정부의 ICT 센터 구축을 통한 청년 창업 훈련 제공 등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특히, 나이로비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위치한 콘자(Konza) 지역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육성을 위한 약 5천 에이커 규모의 신도시 건설과 케냐 과학기술원 설립이 진행중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우리 정부는 '케냐 과학기술원' 설립 관련 당행 경험사업기금(EDCF)을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설립 경험을 제공할 계획임.

석유자원 개발 본격화 및 원유 시범 운송사업 시작

- 영국 석유·가스 탐사 회사인 Tullow Oil사가 2012년 케냐 Lokichar 일대의 Ngamia 광구에서 원유 시추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매장량 발견을 이어가고 있음. Tullow Oil은 동 지역의 잠재매장량을 5.6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6만~10만 배럴/일에 해당하는 양임.
- 한편, 2018년 6월 Lokichar에서 Mombasa*까지의 육로와 철도를 통한 원유 시범 운송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Lokichar와 Lamu항을 연결하는 821km의 송유관을 건설하여 이것이 완공되면 2022년부터 송유관을 이용한 일 8만 배럴의 원유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원유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유공장 설립에 필요한 최소 생산량인 40만 배럴/일 정도가 필요하나, 일일 평균 생산량이 8만 배럴/일에 불과하여 케냐 정부는 당초 계획한 정유공장 설립안을 폐기하고, 운송을 통해 Mombasa 항구에 저장된 원유를 그대로 수출할 계획임.

* 인도양을 접하는 케냐 제2의 도시로, 동아프리카 최대 항구이자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등 주변 내륙국가로 연결되는 물류 요충지로 주요 항구와 국제공항이 있음.

성장잠재력

향후 5년 간의 경제개발계획인 Big Four 추진

-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은 2017년 12월 제조업 활성화, 서민주택 공급, 보건의료 향상, 안정적 식량 확보 등 4개 부문의 향후 5년 간(2018-22년) 경제개발 계획을 담은 Big Four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 상세 목표는 현지 제조 능력 확장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안정적 식량 확보 및 국민 영양 증대, 전국민 의료보장 혜택 확대,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확대임.
- (제조업)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8%에서 2022년 15%까지 상향 및 제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2022년까지 130만 개)하는 것을 목표로 피혁, 섬유, 농산물 가공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 (서민주택 공급) 주택개발기금 설립, 서민형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율 완화 등을 통해 저비용 주택 공급 확대 추진
- (보건의료 향상) 의료보장 예산 확대를 통한 범용 의료 서비스 제공, 병원 현대화 등 의료 시설 개선 추진
- (안정적 식량 확보) 관개시설 개선, 식품 보조금 확대 지급 등을 통한 식품가격 안정, 농업 생산성 개선 추진

정책성과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 케냐 정부는 2008년 초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대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 빈곤계층의 부 창출 기회 확대, 사회간접자본 육성, 에너지 분야 개선, 과학·기술 및 혁신,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치안강화, 공공분야 개혁을 제시하였음. 한편, 동 계획은 관광업, 농업, 제조업, 무역, IT, 금융 등 6대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동 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인프라 및 기술 부족 등 경제성장의 구조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여 공항, 항구, 도로, 철도, 발전용량 등의 신설·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차 중기 사업(2008-12년)을 통해 Jomo Kenyatta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확장 및 현대화, 몸바사 항 시설 개선, 총 24만 km의 도로 확장·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졌으며, 발전용량도 2008년 1,268MW에서 2012년 1,690MW로 증대되었음.
- 2차 중기 사업(2013-17년) 기간에는 발전용량이 2012년 1,690MW에서 2016년 2,341MW로 증대되었으며, 전력사용 가능인구의 증가(2012년 대비 139.9% 증가) 등이 달성되었음. 한편, 몸바사 항 제2터미널 완공,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1구간 완공 등이 진행되었으며, 나이로비와 나이바샤(Naivasha)를 잇는 2구간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9년 완공될 예정임.
- 현재 Vision 2030의 3차 중기 사업(2018-22년)이 진행 중으로, Kenyatta 대통령이 발표한 Big Four와 함께 2022년까지 GDP 성장률 10% 달성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저축 및 투자를 제고, 인프라 개발 및 고용 창출,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 또한 3차 중기 사업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용수 급수율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용수 급수율을 2022년까지 현재 60%에서 80%로 상향시킬 계획임.

정치동향

대선 재선거 이후 화해 국면으로 정치갈등 일단락되었으나, 여당 내분 발생 우려

- 2017년 8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기존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가 54.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야당 대통령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7년 9월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헌법과 선거법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하여 2017년 10월 26일 재선거를 실시하였음.
 - 야당 대표 오딩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이 미진하여 부정선거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케냐타가 99%의 득표율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7년 11월 케냐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재선거 후에도 오딩가 측은 재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2018년 1월에는 본인이 '케냐 국민의 대통령'임을 표방하는 등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으나, 지난 2018년 3월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케냐 방문을 계기로 두 인사 간 급격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대선으로 야기되었던 정치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 케냐타 대통령 측은 화해를 통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오딩가 측은 2022년 대선 시 야당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한편, 양측은 정치적 화해의 산물로 'Building Bridges Initiative'를 설정하고, 독립 후 되풀이 되는 종족 간 반목 및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①종족간 적대감 및 경쟁 해소, ②국민 정서 함양, ③타 언어 및 종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④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⑤분열을 초래하는 선거 방지, ⑥초법적 처형 및 경찰력 남용, 종족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및 안보문제 해결, ⑦부패 척결, ⑧부와 복지 불균형 해소, ⑨인권 및 시민권 침해 해소 등의 어젠다를 제시하였음.
 - 다만, 최근 여당인 jubilee party* 내부에서 루토 부통령(William Ruto)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정하는 것을 두고 내분이 발생하고 있어 차기 대선(2022년) 전까지 이를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케냐타 대통령의 국민연합당(The National Alliance Party) 및 루토 부통령의 연합 공화당(United Republican party)이 통합해 2016년 창당됨.
- 케냐타 대통령은 Kikuyu족, 루토 부통령은 Kalenjin족에 바탕을 두고 있어 케냐타 대통령측은 루토 부통령 보다는 Kikuyu족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지목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사회동향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위협 상존

- 소말리아를 근거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는 2011년 케냐가 아프리카 평화유지군(AMISOM)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병한 뒤 소말리아 내전 개입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케냐 전역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
- 알샤바브 조직원들은 2013년 9월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2015년 4월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등 대규모 살상을 자행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1월 수도 나이로비 호텔 총격 및 폭탄테러(10명 이상 사망 추정), 6월 케냐-소말리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도로 매설 폭탄 테러(케냐 경찰 10명 이상 사망 추정)를 자행하는 등 테러를 지속하고 있어, 케냐 치안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사회동향

부족 간 갈등은 다소 완화 추세

- 케냐는 전체 인구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Kikuyu족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3년 독립 이후 부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1992년 이후 다당제를 도입하면서 선거 이후 승리정당-패배정당 지지 부족 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음.
-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 및 현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를 배출한 Kikuyu족과 초대 부통령인 자라몽기 오딩가(Jaramongi Odinga) 및 현 야당 대표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를 배출한 Lou족의 오랜 라이벌 관계로 인해 대선 때마다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일반 대중의 정치의식 향상으로 갈등이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Kikuyu족 출신의 음와이 키바키(Mwai Kibaki)와 현 야당 대표인 라일라 오딩가 간 경쟁구도에서 선거 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오딩가 지지자들의 저항 및 Kibaki 정부에 의한 탄압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약 1,100명이 사망하고 약 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2013년 대선시에는 사망자가 3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2017년 대선에서는 약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한편,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케냐 47개 주의 청년 대표들이 모여 선거 관련 폭력사태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평화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정치 관련 부족 갈등 방지를 위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간 화해 무드 조성으로 부족 간 갈등은 완화되는 추세임.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만연

- 케냐는 다니엘 아랍 모이(Daniel Arap Moi)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1978-2002)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부패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어 주요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서 케냐는 총 180개국 중 144위에 불과하며, 이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 중 르완다(48위), 탄자니아(99위)보다 낮은 순위임.
- 한편 케냐타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케냐 정부 관료들의 극심한 부정부패가 그동안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정 혐의 발견시 즉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7.22자로 헨리 로티치(Henry Rotich) 재무장관이 현지 Kimwater 댐 및 Aror 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공공조달 절차를 무시하고 이탈리아 내 부도를 선언한 CMC Ravenna에 댐 건설권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음.
- * 당초 댐 건설 예산인 4.5억 달러에 Rotich 장관 임의로 1.6억 달러를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케냐 정부는 이러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만 케냐 정부가 부패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부패척결 이행 여부에 따른 개선 가능성이 주목됨.

국제관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

- 케냐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역협력체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의 6개국으로 구성됨. 관세동맹, 단일 공동시장, 역내 공동 관세율 적용 등 경제-정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1.9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높음.

- 케냐는 GDP 규모, 교역규모 등을 종합한 경제규모가 EAC 회원국 중 가장 크며, 특히 2018년 EAC 전체 수입규모 중 케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량임.
- 다만, 탄자니아와 동아프리카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이따금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지속하는 등 원만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경제규모 비교(2018년)

구 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인구(백만 명)	48.0	51.0	38.8	12.0	11.2	13.0	
GDP(억 달러)	892.1	578.6	281.2	95.1	34.4	39.3	
1인당 GDP(달러)	1,857.2	1,133.5	724.4	791.3	307.0	302.8	
경제성장률(%)	6.0	6.6	6.2	8.6	0.1	-1.2	
교역규모 (억 달러)	수출	61.0	43.7	36.4	11.3	1.9	n/a
	수입	163.4	81.0	67.3	20.3	7.2	n/a

자료 : IMF, KOTRA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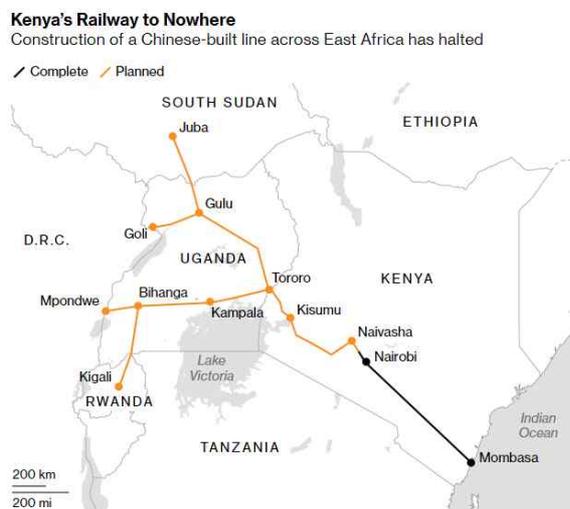
- 케냐는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 공동 입장을 대변하는 등 아프리카 중시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케냐타 대통령은 연임 후 AfCFTA 창설을 적극적으로 주창한 바 있음. 한편,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참여를 통해 기존 EAC 지역 외 역내 타 저소득 국가로의 무역 확대 및 케냐 제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對케냐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fCFTA) :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AfCFTA 설립을 합의하였으며, 2019년 6월 기준 아프리카 역내 총 5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을 완료하고, 24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역내 관세 철폐, 서비스 및 노동력의 자유화 실현을 통한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며, 역내 인구는 약 12억 명 규모임.

국제관계

미국, 영국과 더불어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 협력관계 유지

- 케냐는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음.
- 케냐는 미국의 동부 아프리카 지역 대테러 파트너이자 주요 원조 수혜국으로, 2015년에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케냐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가 수립되었음.
- 한편,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Connect Africa Initiative'를 출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 지원과 관련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혀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중국은 케냐의 주요 수입 상대국^{*}이자 최대 양자채무국으로, 케냐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몸바사-나이로비-나이샤바-말라바 구간 표준궤 철도(SGR) 건설 프로젝트, 라무 종합개발 프로젝트(LAPPSET) 등 철도 인프라 투자, 11개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의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중국의 대 케냐 수출 현황은 27.9백만 달러('12) → 50.6백만 달러('17)로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약 5년 사이 81%가 증가하였음.
- 다만, 1차 사업이 완료된 몸바사-나이로비 표준궤 철도는 운영 첫 해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최근 케냐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추가 차관을 도입하여 나이샤바-말라바 구간 SGR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중국과의 협상에 실패하여 동 구간을 민간협력으로 전환하고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기존에 깔려 있던 미터궤 철도^{*}(Metre Gauge Railway)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이로비-나이샤바 구간과 연결할 계획임.
- 한편, 이와 관련 중국-케냐 간 SGR 건설 계약시 개발비 상환이 불가할 경우 몸바사 항 및 나이로비 내륙 정착항 등의 경영권을 중국수출입은행이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 최근 케냐 내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고 있음.
- * 미터궤 철도는 표준궤 철도보다 두 레일의 간격이 좁은 궤계에 속하며, 부설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 케냐에 설치됨.

동아프리카 표준궤 철도(SGR) 건설 현황('19. 7월)



자료: Bloomberg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 앞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

- 케냐는 2004년 파리클럽과 3.5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19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케냐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33.2억 달러(단기 1.8억 달러, 중장기 31.4억 달러), 이 중 연체잔액은 12.2백만 달러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Moody's	B2 (2018.02)	B1 (2017.10)
Fitch	B+ (2019.04)	B+ (2018.10)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OECD는 2004년 6월 케냐에 대하여 6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2018년 2월 Moody's는 재정수지 악화 및 외채·이자부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여 케냐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Fitch는 B+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케냐 경제는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 부문의 성장 및 가계소비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8년에는 풍부한 강우량에 따른 농업 부문 성장, 정치안정성 개선 및 인프라 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6.0%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을 수립하여 주요 경제 분야의 성장 가속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 반열에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 지역에서 유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자본재 및 에너지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 중국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대선 불복 및 재선거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 3월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와 및 야당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 간의 화해로 정치 갈등이 일단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족간 갈등은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